

# AHP를 활용한 지상파 TV방송의 선거보도 공정성 연구

박승준\*, 김덕모\*\*  
전남대학교 박사\*, 호남대학교 교수\*\*

## A Study on fairness of broadcasting by AHP

Seung-Jun Park\*, Dug-Mo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Honam University\*\*

**요약** 현대 정치에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기계적 공정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함께 비교하기 위해 AHP 분석방법을 통한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1계층의 평가항목 중 내용적 균형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형식적 균형에서는 보도의 순서가 내용적 균형에서는 보도제목이 가장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지표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 편향성 비교에서는 MBC가 편향성이 가장 크고 다음이 KBS, SBS순서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공정성 관련 연구가 형식적 분석에 그쳤던 것에 반해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인 자료를 하나의 분석틀에서 계량화 하고 이의 정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18대 대선, 공정성, 편향성, AHP 지상파TV 방송

**Abstract** As the use of mass media in modern politics grows, its influential power is getting larger than before. Therefore, fairness of broadcasting is identifi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law. In particular, whether the mass media has balanced attitude toward election issues has been a critical point, which made the current law have separate provisions to deal with it. As for the fairness and bias, most existing studies had focused on how long the media dealt with the specific political issues, which leads to only quantitative analysis. Also, most analysis of the contents had been based on very personal judgement and evaluation of researchers rather than following the criteria which is based on scientific method. This study introduced the AHP analysis method to compare the quantitative data and qualitative data altogether, which aims to develop the indicator for weighted measures and measurement of the fairness. Research findings reveals that each broadcaster has, MBC was highly biased and KBS and SBS followed that. Compared with existing studies regarding the political fairness of the media

**Key Word** : 18th Presidential election, Fairness of Broadcasting, Bias, AHP,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Received 10 September 2014, Revised 24 October 2014  
Accepted 20 Nov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Dug-Mo Kim(University of Honam)  
Email: kdmprof@honam.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연구의 목적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과 동시에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선거의 모든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의 정보 전달 체계 역시 공정해야 한다. 특히, 최근 각종 선거에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언론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정인태[1]는 선거매체 유형과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구를 통해 방송매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확인하였고, 한국언론재단[2]의 연구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요소로 TV의 선거보도를 들고 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조사[28]에서 여성유권자가 정치정보를 얻는 매체로 지상파(97.1%)가 가장 많았으며, 매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지상파(73.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Keefe[3]의 지적처럼 언론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결심에 대한 정당화 또는 합리화', '결심', 그리고 '결심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언론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어야 하며, 후보자들 간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유권자 스스로가 무엇이 중요한 이슈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4].

하지만 선거는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나 정파가 존재해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는 만큼 패자의 경우 선거 패배의 주요 이유로 언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백선기[5]는 미디어가 선거에 관여하면서부터, 미디어에 의해 특정 후보자가 부각하기도 하고 여타의 후보자들은 쇠퇴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보다 심해진다면 이를 '미디어의 편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디어의 불공정성'이라고 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언론의 공정성 문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전희락[6]은 언론의 객관성이 비판받는 것은 언론의 객관성이 형식적 합리성에 포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같이 기존의 편향성 연구는 대부분 계량화 할 수 있는 보도건수, 시간 등을 기계적으로 비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언론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기계적 균형감 보다

이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내용적 측면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선거보도의 경우 특정 보도내용이나 관점에 따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들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선거보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균형과 함께 내용의 공정성을 동시에 분석하여야 하며 각각 지표들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정성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여 방송의 공정성 측정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 3사의 TV 보도를 분석한 후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각 지표별 가중치를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가중치 지표를 바탕으로 대안인 3개의 지상파 TV 방송사에 대한 편향성 정도를 쌍대비교를 통해 측정하여 각 방송사별 편향성 정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방송관련 법률에서의 공정성 규정

선거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법은 공직선거법에 공정한 선거행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선거의 경향과 같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미디어의 영향에 의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규정과 조칙을 구성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 제6조1항에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6조9항에서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정치적 균형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언론 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의2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제재조

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법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선거방송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주요 기준은 제4조에서 정치적 중립, 제5조에서 공정성, 제6조에서 형평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대한 개별 법률의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방송사가 지켜야할 당연한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성낙인 등[7]은 선거방송에서 공정성을 지나치게 제한 할 경우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의 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과 같이 방송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수준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법률에 의한 방송의 자유와 규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는데 2002헌바49(2003)에 따르면 ‘방송 자유의 실현과 행사를 위해서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하며,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이 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보다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8].

## 2.2 공정성 관련 기존 연구

공정성과 관련한 연구는 용어 측면에서 객관성, 형평성, 중립성, 사실성 등과 관련해서 해석[9]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법률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방송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 역시 공정성, 형평성 등을 각각 다른 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연구에서는 공정성을 객관성, 형평성 등의 상위 개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각각 독립적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강태영[10]은 텔레비전 보도의 공정성 기준을 ‘정확한 보도, 질적, 양적으로 균형 있는 보도, 적절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은 보도, 단편적이지 않은 종합적인 보도,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반영된 보도, 양시양비론을 지양하는 보도, 불편부당한 보도’ 등 7가지로 정리하였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Westerstahl[11]은 객관성(objectivity)의 하위개념으로 사실성(Factuality)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으로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였으며, 사실성의 하위 개념으로 진실, 적절성을 불편부당성의 하위 개념으로 균형, 비 당파성, 중립성 제시를 들었다.

McQuail[12]은 웨스트스탈의 개념을 보완하여 뉴스실행모형을 객관성과 비 객관성으로 나눈 뒤 객관성은 사실성과 불편부당성, 비 객관성은 당파성, 선전, 주관성 및 선택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뉴스 공정성을 검증하는 세 가지 차원으로 사실성 검증, 윤리성 검증, 이데올로기 검증을 들었으며, 공정 보도를 ‘치우침이 없는 올바른 보도’로 정의하였다[13].

이러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성에 대한 구분이 형식적 중립과 내용적 중립으로 나뉜다.

권혁남[14]은 객관성에 대해 개인적 판단을 자제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민웅[15]은 공정성의 하위 개념과 관련하여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다양성, 중립성(불편부당성),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였는데, 균형성과 관련하여 시간배분, 뉴스항목의 제시 순서, 인터뷰 음성, 영상처리 등의 측면에서 양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특징은 공정성의 개념을 형식적 균형성에 초점을 맞춰 산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 기준에 의지해 평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내용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는 기술적인 평가로 제대로 된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현[16]은 공정성 논의를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용식[17] 역시 공정성의 개념을 형식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으로 구분해 기계적인 중립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유종원[18]도 공정보도라는 개념은 단일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개념들과의 심층적 연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백선기[5]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 미디어의 편향성 여부는 수량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질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텔레비전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 기법으로 ‘화면의 영상처리방식’, ‘앵커와 기자들의 멘트’ 등을 들었으며, 강태영[10]은 텔레비전 보도에서 제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목이 ‘해당 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정성 개념은 법적 정의 뿐 아니라 언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19].

Blankenbury & Walden[20]도 언론인에게 엄격한 객관성을 요구할 경우 단순로운 문제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안만 취재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경직된 기준으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인 진실 추구보다는 공식적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할 수 있다. Schiller[21], Mcquail[12] 등은 공정성 개념이 애매모호해 ‘공정보도’를 너무 강조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공정보도의 상대성을 강조했다.

공정성 관련 개념을 특정한 한두 가지의 측정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대분의 공정성 연구가 일관된 측정지표에 의하기 보다는 연구대상이나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공정성 감증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정성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 측정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3 계층적 분석방법(AHP :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대한 검토

계층적 분석방법(AHP : analytic hierachy process)은 1970년대 중반 Thomas L. Saaty 교수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 기법으로 의사결정 문제를 목적, 기준, 대안 등 계층적으로 구조화하고 쌍대비교의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관적 평가를 객관화하는 이론적 근거와 체계를 갖춘 기법이다[22].

의사결정은 여러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AHP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AHP 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데, 첫째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요소 확립, 둘째 확립된 평가요소 계층 구조화, 셋째 계층 구조화된 평가요소들의 쌍대비교이다[23].

쌍대비교 한 결과의 신뢰도 검증은 Saaty[23]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 CR)이라고 정의하였다. 일관성이 완벽한 경우 CR값은 0이고, 일관성이 나빠질수록 CR 값은 점점 커지게 되는데,  $CR \leq 0.1$ 인 경우에만 판단의 일관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CR \leq 0.1$ 은 매우 엄격한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에서 제외되는 설문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보인다. 때문에 Saaty는 지속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 엄격한 기준의 경우  $CR \leq 0.1$ 을 적용하고 유연한 기준으로  $CR \leq 0.2$ 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4] 제38조에서 종합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CR \leq 0.15$ 를 사용하고 있다.

AHP 조사시 척도에 대해 Saaty[25]는 9점 척도가 실측치와 가장 근접함을 밝혀내고 9점 척도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각 척도의 의미는 <Table 1>과 같다[26].

<Table 1> Fundamental Scale of Absolute Numbers

Intensity of Importance	Definition	Explanation
1	Equal Importance	Two activities contribute equally to the objective
2	Weak or slight	
3	Moderate importance	Experience and judgment slightly favor one activity over another
4	Moderate Plus	
5	Strong Plus	Experience and judgment strongly favor one activity over another
6	Very strong or demonstrated importance	
7	Extreme importance	An activity is favored very strongly over another; its dominance demonstrated in practice
8	When activities are very close a decimal is added to 1 to show their difference as appropriate	
9		The evidence favoring one activity over another is of the highest possible order of affirmation
1.1-1.9	If activity i has one of the above nonzero numbers assigned to it when compared with activity j, then j has the reciprocal value when compared with i	A better alternative way to assigning the small decimals is to compare two close activities with other widely contrasting ones, favoring the larger one a little over the smaller one when using the 1 - 9 values.
Reciprocals of above		A logical assumption
Measurements from ratio scales		When it is desired to use such numbers in physical applications. Alternatively, often one estimates the ratios of such magnitudes by using judgment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3.1 연구문제의 기술

이번 연구는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활용한 대통령 선거에서 지상과 TV 방송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탐색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한 측정 지표의 개발 그리고 이 측정 지표를 활용한 사례조사와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통해 상대적 편향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 지상과 방송 3사의 대선후보에 대한 뉴스 보도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지상과 방송 3사의 대선후보에 대한 뉴스 보도의 공정성을 AHP 방법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는 무엇인가? 등으로 하였다.

#### 3.2 연구방법

##### 3.2.1 사례 분석 방법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상과 TV 방송보도의 공정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9월, 3개월 동안 지상과 방송 3사 저녁 메인뉴스 전체를 모니터링 하였다.

- 가. 모니터 기간 : 2012년 7월-9월까지 3개월
- 나. 대상 : 지상과 TV 방송 저녁메인뉴스(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 다. 분석 유목 : 경선 보도건수, 보도량, 선거관련 보도의 순서 등 양적 분석을 위한 유목과 뉴스 제목, 영상구성방식, 후보자 이미지, 후보자발언 인용방식 등 정성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 하였다.

##### 3.2.2 계층적 분석방법(AHP : analytic hierachy process)

이번 연구에서는 지상과 TV의 대통령선거 보도에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각 방송사들 간의 편향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있다. 이를 위하여 쌍대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방송의 공정성 측정을 위한 지표의 중요도 개발을 위하여 1차 설문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관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aaty[22]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인  $CR \leq 0.1$ 인 경우만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가. 공정성 평가 지표

방송의 공정성 여부 분석 이전에 필요한 것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Table 2>와 같이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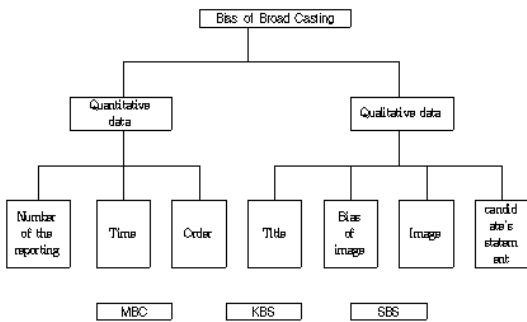
<Table 2> Measurement of the fairness

List	category	Explanation
Quantitative data	Number of the reporting	Number of the political campaign reporting
	Time	Rate of the political campaign reporting
	Order	Order of reporting
Qualitative data	Title	headlines of the news
	Bias of image	Source of image
	Image	Bias of candidate's image
	candidate's statement	Bias of candidate's statement

공정성과 관련한 용어의 경우 객관성, 중립성, 형평성, 불편부당성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용어의 경우 상·하위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정성'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의미의 통칭으로 보고 이의 반대되는 되는 개념을 '편향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창현[16], 이용식[17]등이 주장한 것과 같이 공정성에 대한 구분을 단순히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에 한정하지 않고 형식적 균형과 내용적 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하위 개념으로 방송관련 법률과, 백선거[27], 이민웅[15], 강태영[10] 등이 규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 나. AHP 측정지표의 개발

측정지표의 개발은 모니터 과정에서 활용한 측정 기준 표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2계층을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구분하고 3계층을 세부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Fig. 1] hierarchy of the measurement

다. 대안에 대한 평가

대안을 이번 모니터 과정에서 분석한 3개 방송사로 한정하고 가중치 평가로 개발된 측정지표의 최종 가중치별 대안의 쌍대비교를 통해 편향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사례연구 결과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측정지표를 기준으로 연구기간동안 지상파 TV 방송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정량적 분석과 함께 정성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는데, 정량적 조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보도기사의 양 및 전체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단순한 보도기사수와 함께 방송보도의 시간 그리고 순서 역시 의미 있는 측정 지표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성적 형태의 보도 분석을 위한 항목으로는 기사의 제목, 영상구성방식, 후보자의 영상 이미지 처리 방법, 후보자의 발언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4.1.1 정량적 조사 결과

가. 전체 뉴스 건수 대비 선거 관련 보도 건수

전체 뉴스 중 방송사의 선거 관련 보도 비중을 비교해 보았다. 방송사의 선거보도 기사 건수는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의 비중을 상호비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Table 3> Rate of the political campaign reporting

Categories	Total	Political campaign reporting	Rate
KBS	2,864	153	5%
MBC	2,644	157	6%
SBS	2,244	119	5%

<Table 3>과 같이 KBS는 조사기간 보도기사 전체 2,864건 중 선거 관련 보도는 153건으로 전체의 5% 비중을 보였다. MBC는 전체보도 2,644건 중 선거 관련 보도 157건으로 6%, SBS는 2,244건 중 119건으로 5%의 비중을 보였다. 3사 모두 5~6% 내외의 비중으로 선거 관련 보도를 전달했다. 대통령선거라고 하는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았으나 각 방송사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보도량 차이

보도내용에서 각 정당별 보도량은 <Table 4>와 같이 KBS가 새누리당 85건, 민주통합당 85건, 무소속 42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고, MBC는 새누리당 97건, 민주통합당 85건, 무소속 55건, 기타 8건을 보였으며, SBS는 새누리당 80건, 민주통합당 77건, 무소속 52건, 기타 4건으로 나타났다.

<Table 4> Number of the reporting by party

Categories		Saenuri	Minjoo	unattached	Etc
KBS	number	85	85	42	8
	rate(%)	38.6	38.6	19.1	3.6
MBC	number	97	85	55	8
	rate(%)	39.6	36.3	22.4	3.3
SBS	number	80	77	52	4
	rate(%)	37.6	36.2	24.4	1.9

무소속을 제외한 두 정당만을 비교해 볼 때 MBC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다른 방송사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특징은 방송사별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정당별로 비교적 균형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선거와 달리 무소속에 대한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당별 비교의 보도 건수가 비교적 균형을 갖춘 것에 반해 당내 후보자간 보도건수는 차이를 보였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각 정당의 유력 후보자의 보도기사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Number of the candidate

Categories	Party	Candidate				
KBS	Saenuri	G.H Park (78)	M.S Kim (30)	T.H Kim (25)	T.H Lim (18)	S.S Ahn (17)
	Minjoo	J.I Moon (76)	H.Q Son (43)	S.K Jeong (40)	D.K Kim (39)	J.Y Park (11)
MBC	Saenuri	G.H Park (74)	M.S Kim (19)	T.H Kim (10)	T.H Lim (8)	S.S Ahn (5)
	Minjoo	J.I Moon (74)	H.Q Son (44)	S.K Jeong (30)	D.K Kim (40)	J.Y Park (7)
SBS	Saenuri	G.H Park (85)	M.S Kim (19)	T.H Kim (14)	T.H Lim (10)	S.S Ahn (6)
	Minjoo	J.I Moon (66)	H.Q Son (31)	S.K Jeong (18)	D.K Kim (25)	J.Y Park (5)

다. 선거관련 보도의 순서

방송보도의 순서는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따라서 선거관련 보도의 순서는 유권자에게 선거의 중요도를 설정하고 관심을 이끄는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강하게 제기될 경우 순서는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기간동안 모든 보도기사 가운데 선거보도의 순서를 확인하였는데 동일한 방송에서 여러 건의 선거관련 보도가 방송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선거관련 보도가 있었던 방송 가운데 선거관련 보도가 상위 5번째 이내에 자리한 사례만을 조사하였다.

<Table 6> Political campaign reporting of the Over 5th order

Categories	Total	Political campaign reporting	Rate
KBS	73	29	39.7%
MBC	71	20	28.2%
SBS	75	31	41.3%

조사결과 <Table 6>과 같이 KBS의 경우 전체 73건 가운데 29건(39.7%), MBC는 전체 71건 가운데 20건(28.2%), SBS는 전체 75건 가운데 31건(41.3%)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 볼 때 SBS가 선거관련 보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MBC는 순서 배정의 중요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1.2 정성적 조사 결과

가. 뉴스 제목

선거보도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전달하고 있는 지, 부정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사 제목이다. 제목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기사에 대한 판단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제목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분석결과 <Table 7>과 같이 선거보도의 제목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에서 긍정적인 용어 또는 부정적인 용어 사용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는 긍정은 없었으며, 중립 125건 92%, 부정 11건 8%, MBC는 중립 73건 46%, 부정 58건 37%, 긍정도 26건으로 17%, SBS는 중립, 108건 75%, 부정 16건 11%, 긍정 20건 14%를 보였다.

<Table 7> Bias of the headlines

Categories		Positive	Negative	Neutrality
KBS	number	-	11	125
	rate(%)	0	8	92
MBC	number	26	58	73
	rate(%)	17	37	46
SBS	number	20	16	108
	rate(%)	14	11	75

나. 영상 구성 방식

주요 후보자에 대한 영상 구성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영상의 출처가 현장 자료인지 기존 자료를 활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비교 하였다.

박근혜와 문재인이 경우 현장영상이 자료영상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안철수는 자료영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현장 영상의 유무 여부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매일 새로운 장소와 유권자들을 만나는 후보자의 동선을 감안

할 때 후보자 영상 유무는 공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Table 8>과 같이 KBS가 6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MBC는 54.8%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별 차이의 경우 KBS가 문제인에 대한 현장영상 비율이 82.9%로 높게 나타났으며, 3사 모두 안철수에 대한 현장 영상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8> Source of image

Categories	Candidate	Field	Data	Rate of field	
KBS	G.H Park	60	27	69.0	69.8
	J.I Moon	63	13	82.9	
	C.S Ahn	18	21	46.2	
MBC	G.H Park	47	24	66.2	54.8
	J.I Moon	43	26	62.3	
	C.S Ahn	13	35	27.1	
SBS	G.H Park	60	23	72.3	62.7
	J.I Moon	51	18	73.9	
	C.S Ahn	17	35	32.7	

다. 후보자 이미지

주요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에 대한 방송영상의 구성방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Table 9>와 같이 KBS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건을 긍정적으로 보도한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긍정적 이미지는 19건에 불과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3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 역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보도 비중이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9> Bias of candidate's image

Categories	Candidate	Positive	Neutrality	Negative	Sum
KBS	G.H Park	54	26		80
	J.I Moon	19	54	3	76
	C.S Ahn	17	19	1	37
MBC	G.H Park	26	48		74
	J.I Moon	10	54	2	66
	C.S Ahn	9	41		50
SBS	G.H Park	20	49		69
	J.I Moon	13	54	1	68
	C.S Ahn	9	41		50

라. 후보자 발언 직접 인용 여부

후보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공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조사 결과 <Table 10>과 같이 3개 방송사 모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후보자 발언 직접 인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차이는 크지 않았다.

<Table 10> Use of the candidate's statements

Categories	Candidate	Involve	Not involve	Sum
KBS	G.H Park	50	29	79
	J.I Moon	50	23	73
	C.S Ahn	18	19	37
MBC	G.H Park	61	19	80
	J.I Moon	47	20	67
	C.S Ahn	19	33	52
SBS	G.H Park	44	29	73
	J.I Moon	41	32	73
	C.S Ahn	14	38	52

#### 4.2 AHP 평가 결과

이번 연구는 3개월간의 지상파 방송 3사의 저녁 메인 뉴스 전체를 다양한 측정항목으로 분석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계량화 하였다. 하지만 조사된 각 항목별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가중치로 두고 상호 비교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정량적 분석의 수치와 동일한 측정기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모니터 측정 기준 표에 따른 측정 지표를 계층화 해 가중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사별 쌍대비교를 통해 공정성의 역 개념인 편향성 정도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쌍대비교를 통한 측정지표의 개발 및 대안에 대한 평가결과는 <Table 11>과 같다.

CR 값은 0.054로 Saaty가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0.1보다 높게 측정되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1계층의 형식적 균형과 내용적 균형은 0.145와 0.855로 내용적 균형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Result of the AHP

categories	Mode of the distribution	Alternatives			Sum
		MBC	KBS	SBS	
1 <sup>st</sup> hierarchy	2 <sup>nd</sup> hierarchy				
Quantitative data (L:0.145 G:0.145)	Number of the reporting(L:0.135 G:0.020)	0.404178	0.345173	0.250649	1
	Time(L:0.199 G:0.029)	0.380089	0.380089	0.23982	1
	Order(L:0.665 G:0.097)	0.604154	0.247576	0.14827	1
	Sub-total	0.532414	0.287204	0.180381	1
Qualitative data(L:0.855 G:0.855)	Title(L:0.395 G:0.338)	0.41478	0.3652	0.22002	1
	Bias of image(L:0.179 G:0.153)	0.447735	0.321463	0.230802	1
	Image(L:0.271 G:0.232)	0.533458	0.316143	0.150399	1
	candidate's statements(L:0.155 G:0.132)	0.448289	0.346318	0.205393	1
	Sub-total	0.458055	0.341151	0.200794	1
Sum		0.468856	0.333315	0.197829	1

2계층의 경우 기사수 (L:0.135 G:0.020), 보도시간 (L:0.199 G:0.029), 보도순서 (L:0.665 G:0.097), 보도제목 (L:0.395 G:0.338), 영상구성방식 (L:0.179 G:0.153), 후보자 이미지 (L:0.271 G:0.232), 후보자 멘트 (L:0.155 G:0.132)로 측정 되어 보도제목과, 후보자 이미지가 높은 가중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개발된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3개 방송사에 대한 쌍대 비교를 통한 대안 평가를 한 결과 편향성의 정도는 MBC(0.469), KBS(0.333), SBS(0.19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가중치 평가를 통한 평가이기 때문에 단순 편향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대적 평가에서는 MBC가 편향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모든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가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공정성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며, 이의 측정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신장하는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공정성 관련 연구는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나치게 형식적 균형을 통한 검증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형식적 균형 분석에 내용적 균형을 분석을 추가하여 공정성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계층적 분석방법을 통해 가중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문제 1 “지상파 방송 3사의 대선후보에 대한 뉴스 보도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가?”를 위한 방송의 공정성을 측정 지표는 보도의 형식적 균형보다는 내용적 균형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 측정 결과 내용적 균형은 0.855, 형식적 균형은 0.145를 보였다. 형식적 균형을의 하위 항목 가운데는 보도순서가 0.665로 기사수(0.135), 보도시간(0.199)에 비해 중요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내용적 균형에서는 보도제목이 0.395로 영상구성방식(0.179), 후보자이미지(0.271), 후보자 멘트(0.155)보다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전체 항목의 중요도를 보면 내용적 균형을의 보도제목(0.338)과 후보자 이미지(0.232)가 중요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형식적 균형을의 기사수(0.020)와 보도시간(0.029)의 가중치는 낮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 “지상파 방송 3사의 대선후보에 대한 뉴스 보도의 공정성을 AHP 방법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는 MBC가 0.469의 상대 편향성을 보여 가장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KBS(0.333), SBS(0.198)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MBC의 경우 형식적 균형이 0.532로 KBS(0.287), SBS(0.180)보다 편향성 정도가 심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내용적 균형은 0.458로 KBS(0.341), SBS(0.2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연구기간 직전까지 MBC가 언론 공정성과 관련하여 장기간 파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KBS 역시 언론 공정성과 내부적 문제로 인해 파업을 하는 등으로 방송 보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두 방송사의 공정성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일관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학문적 측면에서 방송의 공정성 측정을 형식적 균형과 내용적 균형을 포괄하여 설정하였고, 각 항목에 대해 가중치 분석을 통해 중요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방송의 공정성 측정은 형식적 균형보다 내용적 균형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도의 제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계층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공정성 지표를 통해 방송사간의 편향성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이를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의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각 언론사의 공정성 지수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보다는 쌍대비교를 통해 단순히 언론사간의 편향성 정도 평가만 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와 문헌 연구,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 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평가 기준 등을 통해 편향성 평가를 위한 공정성 기준을 설립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기준이 확립된 이후 단순히 언론사간의 편향성 차이를 비교하기 보다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각 언론사들의 편향성 정도를 평가한다면,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 [1] I. T. Chung, Effects of election campaign media in the Election Law and voting choice : Compared with the 6.3 local election, the 4.11 parliamentary election, and the 12.19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013. 12, Vol. 13 No. 4, pp. 549-589, 2013.
- [2] Korea Press Foundation, 2007 Selection of people. Korea Press Foundation, 2008.
- [3] O'Keefe, G., "Political Campaign and Mass Communication" in S. Chaffee(ed). *Political Communication*, Beverly hills:Sage, 1975.
- [4] Dahrendorf, R, *Class u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 Press, 1996.
- [5] S. G. Baek, Report and bia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Press Arbitration*, 2007, Summer, pp. 4-21, 2007.
- [6] H. R. Jeon, A Study on the objectivity of election campaign report.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Vol 8, pp. 269-309, 2008.
- [7] N. I. Sung · K. B. Kwon, Constitutional Review on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 *Journal of SNU Law*, Vol. 47, No. 1, 2006.
- [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ommentary of the Constitution*, Vol. 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0.
- [9] J. I. Lim, Internet press and fairness of Political campaign report. *Discussion on the Internet press and the General election report*, 2004.
- [10] T. Y. Kang, Fairness criteria of TV press. *Fairness and Politic Discussion of TV journalism*, pp. 1-40, 2004.
- [11] Westerstahl, J., Objective news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10(3), pp. 403-424, 1983
- [12] Mcquail. D., *Mass Communication Theory*, SAGE Publications, 2005.
- [13] H. S. Lee, *A presidential election and TV debate*. Nanam, 1996.
- [14] H. N. Kwon, *Theory and Practice of the media election*, Communication Books, 2002.
- [15] M. W. Lee, *Understanding of the Korea TV journalism*, Communication Books, pp. 77-123, 1996.
- [16] C. H. Lee, Study on the Institutional strateg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ress fairness.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The Debate of 16<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TV report*, 2004.
- [17] Y. S. Lee., Problem of political campaign report at the field. *Kwanhun Journal*, Vol. 43, No. 1, pp. 106-114, 2002.
- [18] J. W. Yu, Study on the fair press conception and

- mean of Korea. Journal of Korea Press, Vol. 33, pp. 137-164, 1995.
- [19] J. D. Moon · Y. T. Yoon, A Reconceptualization of Fairness in the Journalism Focusing on the "Autonomy". Journal of Korean Press&Communication, Vol. 27, pp. 93-122, 2004.
- [20] Blankenbury, W. B & Walden, R., Objectivity, interpretation and economy in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54(3), pp. 591-595, 1997.
- [21] Schiller, D., Objectivity and the news: The public and the rise of commercial journal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1.
- [22] Thomas L. Saaty, The Analytic Hierachy Process. New York:McGrawHill, 1980.
- [23] B. C. Kim, Study on the Public relation strategy for public media lab status at the smart media era.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 2011.
- [2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pplication guid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201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2.
- [25] Thomas L. Saaty,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chy/Network Process. RACSAM, Vol. 102(2), pp. 251-318, 2008.
- [26] Thomas L. Saaty, Decision Making for Leaders. 2<sup>nd</sup> Edition. RWS Publications, 1990.
- [27] S. G. Baek, Semiotics of Korean political campaign press. Communication Books, pp. 37-43, 1997.
- [28]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626612.html>

### 박승준(Park, Seung Jun)



- 2005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
- 2011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자상거래학 박사)
- 관심분야 : Decision Science, AHP, E-commerce 등
- E-Mail : sayhaje@gmail.com

### 김 덕 모(Kim, Dug-Mo)



- 1986년 2월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사)
- 1988년 2월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석사)
- 1997년 2월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정치학 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저널리즘, 언론정책, 디지털 콘텐츠
- E-Mail : kdmprof@honam.ac.kr